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유재덕(서울신학대학교/부교수)

paulu@stu.ac.kr

한글 초록

팬데믹은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구분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변화를 초래했다. 사회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홀로 죽음을 맞는 개인은 물론, 일부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적 불평등, 그리고 최근 서구 국가들에서 급증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 차별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촉발한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현격한 백신 격차,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 격차와 개인 및 법인의 파산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은 지구적 수준에서 ‘모든’(pan) ‘사람들’(demos)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기능하고 있다. 짐증하는 폭력과 가난, 기근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팬데믹이 확산할 경우 세계가 최악의 재앙을 목격할 수 있다는 예측 역시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의 일부 변화들을 검토하는 한편, 그에 따른 향후 기독교교육의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직면한 의료와 경제, 그리고 심리적 위기를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기독교 신학과 선교, 그리고 예배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본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 주제어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불평등, 심리 위기, 기독교 신학, 선교, 예배, 거

*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점 교육, 안전, 생태 문제

I. 들어가는 말

코로나바이러스는 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감염병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BC 430년 아테네를 휩쓴 역병, 541년의 유스티아누스 페스트 유행, 137년의 페스트 창궐, 그리고 1918년의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맹위를 떨친 스페인 독감과 비교될 정도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 1백 년간 발생한 최악의 호흡기 질환 목록에 스페인 독감 다음으로 이름을 올릴 게 분명하다고 단언한다(Christakis, 22). 구체적인 지명과는 무관하게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을 얻은 20세기 초반의 인플루엔자 감염병 희생자는 3900만 명 이상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단기간에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억 3213만 5481명을 감염시켰는데, 그 가운데 475만 5924명이 사망했다. 일부 언론은 실질 누적 사망자가 공식적인 통계와 달리 대략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곽노필, 2021).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일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Hennessey, 2020). 사회관계망에서 소외되어 단독으로 맞이하는 개인의 죽음부터 일부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적 불평등, 서구 사회에서 최근에 급증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이 있다. 이외에도 자국 이익 중심의 백신 확보 경쟁이 가져온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이른바 백신 격차(vaccine divide/inequality),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소득격차와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은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pan) ‘사람들’(demos)이 모면할 수 없는 일종의 한계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점증하는 폭력과 심화하는 가난, 그리고 기근의

망령으로 핍박받는 나라들에 두루 팬데믹이 신속하게 확산한다면...세계는 이제껏 목격했던 최악의 재앙 중 몇몇을 목도할" 것이라는 가디언의 예측을 단순히 간과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the Guardian, 2020).

팬데믹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평등(민주주의)과 효율(자본주의)이 상충하는 정치 의제를 방역과 인권의 문제로 순식간에 전환시켰다. 단적인 사례가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과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논쟁이다. 아감벤은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를 “예외 상태를 일상적인 지배의 패러다임으로 삼으려는 경향”으로 간주한다(Zizek, 2020, 96). 국가의 방역 조치를 수용하고 열린 사회적 공간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타자와 고립되어 생존만을 쫓는 기계에 불과한 처지로 전락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때문에 아감벤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전처럼 살아가야 하고, 설령 죽음을 맞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한다(지젝, 2020). 반면에 지젝은 낡은 방식을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사회적 삶의 방식을 구축하고 발명하도록 제안한다. 지젝이 거론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조치의 수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삶의 소멸을 ‘영점’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지젝의 엄격한 요구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의 주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역시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팬데믹 초기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행정적으로 적극 개입하는 바람에 제한적인 모임만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물리적 모임을 갖지 못한 채 디지털 매체로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가서 평소 기독교에 부정적인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팬데믹을 종교 탄압의 계기로 활용하거나 방역조치에 소극적인 소수집단을 혐오와 차별 대상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팬데믹이 초래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기독교는 안팎에서 총체적인 변화

를 강요받고 있다. 기독교 신학은 물론 예배와 의식, 그리고 교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규범(new normal)을 설정하는 한편, 그에 따라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급속히 초래한 사회 전반의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그에 따른 향후 기독교의 대응 방향과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의료와 경제, 심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본다(2장).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과 선교, 예배의 현재 상황과 변화를 살펴본다(3장).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전반적인 논의를 기초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4장).

II.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 변화

1. 의료 변화

로젠(Leah Rosen)이 지적했듯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의 x-레이’처럼 기능해서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종교적,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한꺼번에 노출시켰다(2020, 1). 코로나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이른바 ‘미개척 유행병’(virgin soil epidemic) 효과 때문이었다(McNeil, 1976). 코로나바이러스는 출처나 중간 숙주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정체가 모호하다. 인류는 신형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결여한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채 인지하기도 전에 또다시 타인에게 전파될 정도로 강력했다. 팬데믹 초반에 중세의 페스트 대유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압도적이었던 것도 바이러스의 강력한 감염력 때문이었다.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신속한 백신 개발과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향후 한두 차례 작은 파동이 발생해도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과 백신의 불충분한 효과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가까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가 엇갈린다(Christakis, 456-7).

팬데믹은 의료 소비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근대적 의미에서 병원이 등장한 이래 거의 한 세기 이상 별다른 혁신 없이 지속된 의료 서비스의 전통적 소비 방식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의료 경계를 넘어서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의 공간적 경계가 본격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계의 소멸로 단순한 비대면 진료는 물론 골수이식처럼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수술까지 환자의 주거지에서 시행하는 재택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Michaud & Cousens, 2020). 우리나라 역시 법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지 않다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컴퓨터 기반 IT와 의료체계의 융합이 유발한 전통적 의료 서비스 공간과 경계의 소멸은 의료비와 의료의 접근성, 그리고 의료의 질이라는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이 줄곧 고수한 균형을 깨뜨리고 전인미답으로 진행하고 있다(이상규, 2018).

일부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의료의 불평등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정 인종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감염 발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거나 항체 보유자로 판정된 대상자에게만 '면역 여권'(immunity passport)이나 '면역 증명'(immunity certificates)을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다문화 국가에서는 흑인이나 라틴계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비교적 높다는 보고가 있다. 브라질 역시 아프리카계 흑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40퍼센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Oxfam, 2021). 이런 현상은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소수 인종이 기저질환을 보유한 사례가 많고, 밀집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위생적인 업무환경에서 사회

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에서 소외된 데 따른 결과로 판단한다(Perez-Stable, 2021). 항체 보유를 근거로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역 여권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최소제한대안’(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원칙에 다소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Persad & Ezekiel, 2020). 하지만 지금까지 항체의 적정 보유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부재할뿐더러 분명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2. 경제 불평등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위기는 국가들마다 어느 정도 상이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나 ‘최악의 한파’(Great Frost)로 농업생산이 거의 마비되었던 1709년의 영국 상황과 직접 비교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사망으로 입은 피해(8조 달러)와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8조 달러)을 감안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대공황 이후 “미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Cutler & Summers, 2020, 324). 반면에 우리나라는 팬데믹과 거의 무관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수출품목들 덕분에 GDP 성장률이 3.7퍼센트를 기록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팬데믹은 우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서, 전 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에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단연 대표적이다. 국제구조개발기구 옥스팜(Oxfam)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불평등 바이러스’(inequality virus)로 규정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매년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옥스팜은 글로벌 수준에서 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한 것은 20세기 초반에 세금 기록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사이먼(Simon, 2020)은 팬데믹과 봉쇄로 “엄청난 불평등이 창궐”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거대한 기업들과 이미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이득이 되는 긴급 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옥스팜의 주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옥스팜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졌으며, 경제적 및 인종적, 또는 성별 불평등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부유층의 경기 침체는 모두 끝났고, 전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이 5400억 달러(약 600조 원) 증가했다(Oxfam, 2021).

계속해서 옥스팜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을 노동자,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를 일차적으로 지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군에 속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에게 비해 한층 더 실업률이 높다. 부커(G. Bucher) 역시 “여성과 소외된 인종 등이 이번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을 뿐 아니라 “빈곤에 빠지고 굶주릴 가능성이 더 크며 의료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더 크다”고 강조한다(Oxfam, 2021).

지젝(S. Zizek) 역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팬데믹이 뜻하지 않게 경제에 영향을 끼쳐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한다. 가령, 팬데믹 이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서로 모순되게 결합한 조치들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기존에 고수해온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민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의 의료보장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 ‘필요에 따른 분배’ 개념과 일치한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분산해서 미시화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을 공산주의와 무관하게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설명하기도 한

다.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해체를 거쳐 성취하는 사회주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은 주장한다(Zizek, 116-7).

3. 심리 위기

팬데믹에 따른 심리적 위기는 의료 문제나 경제적 피해와 달리 바이러스의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서 시민의 정서건강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 전체가 심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되었다(Gallup, 2020). 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에 동참하는 시민들 다수가 과거와 달리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이 대폭 낮아진데 반해서 걱정, 슬픔, 분노를 비교적 자주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임상연구에 의하면, 2018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는 미국인 일부(3.9%)만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이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무렵에는 13.6%까지 급격하게 증가해서 코로나 팬데믹 사후에도 지속되는 장기적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zer et al., 2020).

바이러스 팬데믹이 초기 단계를 지나 거의 2년간 지속되자 공포와 불안, 그리고 감염병의 물리적 대처에 따른 대응 피로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행병에 대한 부족한 정보가 촉발한 공포와 불안정서가 혐오(또는 증오) 감정과 결합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차별이 서구 국가들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바이러스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차별의 희생자들은 대개 아시아 이민자거나 고령자와 빈민, 그리고 소수 종교집단이였다(Christakis, 256).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중국을 발원지

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정치인들의 선동적 발언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집단이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종교집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참석자는 방역의 기본을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위자로 한동안 간주되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역시 불안정성과 맞물려서 과거보다 한층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거의 80%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안전이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비생활 역시 안전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을 쫓는 것으로 응답했다(대한상공회의소, 2021).

계속해서 집단 차원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국경 봉쇄, 백신 접종처럼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큰 방역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우려와 항의가 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상황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기에 부모 중 한 쪽의 사망이나 정신질환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한 어린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것과 동일하게 팬데믹 이후에 PTSD가 유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불안조절이 어렵거나 정신건강을 위한 배출구(운동이나 자유놀이)가 제한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 음악이나 미술, 사회, 체육 같은 교과목의 축소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핵심과목 위주로 진행하는 학교 교육으로 그런 추세가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Christakis, 402-3).

Ⅲ. 코로나 팬데믹과 기독교의 변화

1. 신학의 변화

기독교 역시 사회의 기타 분야처럼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가치를 성찰하고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 시대에 신학이 주목해야 할 주제를 꼽으면 공감과 협력, 생태문제,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기술공학이 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위기는 공감과 협력이라는 인간의 능력을 시험했다. 범유행기 초반 개인들은 방역을 위해 고립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 선동이나 슈퍼 전파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팬데믹은 폭력적 행동과 달리 지구적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기도 했다(Francis, 2020). 협력으로 위기에 대처한 사례는 문화예술과 의료 분야가 대표적이었다. 예컨대, 뉴욕 필하모닉은 격리된 단원들이 저마다 파트를 연주한 후 각자의 영상을 합쳐서 교향곡 전곡 연주 영상을 제작해 대중들을 위로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합동 공연과 연주가 잇따랐다. 자키(J. Zaki)가 ‘재난 동정심’(catastrophe compassion)으로 규정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Christakis, 313). 팬데믹으로 심화하는 ‘빈부격차’는 기독교 신학이 타인을 돕는 공감과 협력의 기본 욕구로서 교회와 세상의 대립을 극복하고 사회 문제에 관여할 때 해소될 수 있다(Hauerwas, 1991, 74).

팬데믹은 생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팬데믹으로 베네치아의 운하가 맑아진 것이라든지 공기 오염도가 낮아졌다는 보고는 인간들이 자연 질서를 반성 없이 얼마나 훼손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Hiscott et al., 2020). 일시적인 환경회복을 넘어서서 보다 심층적으로 생태문제를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크뤼첸(Crutzen, 13-18)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인류가 전 지구에 지질학적 규모로 흔적을 남긴 덕분에 가역 불가한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e)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인류세의 대표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에 의존한 데 따른 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거론된다.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서식지를 상실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삼은 게 지금의 팬

데믹이라는 것이다. 켈러(Keller, 2021)는 기후재앙 원인을 성서의 종말론을 빌어 해석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주불능의 지구나 기후파멸을 초래할 생태 파괴에 편승한 것은 계시록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통념적 묵시적 종말론과 달리 종말은 세계의 파멸, 즉 세계의 ‘대체’(replacement)가 아니라 ‘갱신’(renewal)이다. 계시록(21:5)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라는 게 켈러의 주장이다(Keller, 12-3).

팬데믹 시대에 신학이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기술공학이다. 공감이나 협력, 그리고 생태문제와 달리 디지털 기반 기술공학 역시 신학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범유행 초기 몇 개월 간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다수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대면 예배는 대체로 금지되었다. 예배 공간이나 시설은 식당이나 상점 등 다른 실내 공간보다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예배 공간은 다수가 밀집할 뿐더러 큰 음성으로 노래해서 전파 위험이 한층 더 높다는 게 근거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종교시설을 고위험 군으로 분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2년 2월 우리나라에서 신천지의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고(BBC, 2020a), 3월에는 미국에서 교회성가대 집단감염이 있었고, 5월에는 독일에서 예배에 참석한 교인 가운데 100명 이상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교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트리밍으로 중계하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 가상예배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교회 내부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수도권과 부산의 일부 교회가 정부 방역지침에 불복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집합금지나 과태료, 운영 중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폐쇄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유는 주로 노년층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부족에 따른 불만을 고려하거나 종교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BBC, 2021). 미국에서는 성공회 주교 도일(Doyle, 2020)이 가상

성만찬(virtual communion)이나 온라인 예배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성만찬과 예배는 한 장소에서 신체 및 물리적 상징과 더불어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동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워드(Ward, 2002)가 유동적이고 경계를 정할 수 없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은 개인적 욕망을 좇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국 장로교회는 신학적 논의를 거쳐 긴급하거나 비상시에는 교회가 온라인 또는 가상으로 성만찬을 진행할 수 있다는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목회적 필요로 인해 교회가 정상적인 관행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고...공중보건 상 대면으로 모일 수 없는 비상사태나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교회는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Jones, 2020). 콜린스(Collins, 2020) 역시 기독교가 과거부터 혁신적인 기술에 개방적이었을 뿐 아니라 선교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것을 근거로 온라인 예배 역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기술의 신학’(theology of technology)이 기독교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게 콜린스의 제안이다. 바우먼(Bowman, 2021, 5)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을 인용해서 가상현실을 통한 성만찬이 회중의 부재 속 존재(presence-in-absence)를 상징하지만, 십자가 사건 당시의 삼위(trinity)처럼 물리적 분리를 비통해 하면서도 가상의 기술을 매개로 시공간을 가로질러 기도로서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팬데믹과 선교

팬데믹은 신학은 물론 선교에 대한 이해까지 변화시켜 교회 자체보다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세상’을 교회로 이끄는 것으로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폭스는 성장주의를 추구하는 전통적 방식의 선교는 세계를 성과 속이라는 대조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혹

독하게 성장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모임을 장려할 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의 운영과 유사한 형태로 간주한다(Cox, 2018, 144). 이런 특징들은 교회의 건축 구조나 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신교 교회의 내부 구조는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서 다양한 모임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대성당과 달리 수평적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회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치 쇼핑몰처럼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교회로 불러 모으는 선교방식과 시장 형태를 하고 있는 교회 시설이 결합해서 이른바 초대형교회(megachurch)라는 ‘매혹적인’ 새로운 회중 생활이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Cox, 140).

이런 전통적 선교 방식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이미 등장한 ‘하나님 선교’(Missio Dei)는 교회의 성장주의나 번영의 복음을 비판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는 러셀은 선교의 본질을 “성서적 관점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배’(oikonomia)이면서 동시에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행위”로 정의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내부에 회중을 끌어모을 게 아니라 세계 속으로 파송 받은 행위나 파송된 선교사로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Russell, 1979, 90-91). 이외에도 구도자 중심 교회에 비판적인 기독교 운동(‘Fresh Expressions,’ 또는 ‘Emerging Churches’)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선교 목적으로 삼도록 강조했다(Cray, 2016). 이런 운동은 교회 안에서의 모임보다 교회 밖으로의 확산을 일차적으로 강조했다.

팬데믹은 기독교의 선교 방식에 실질적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밀집된 모임에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들은 마치 1세기에 로마를 상대로 한 유대 반란전쟁 직후 팔레스타인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졌듯이 분산형 회중 구조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수 교인들이 각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배를 비롯한 종교집회에 참여해야 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음식과 재정 및 의료지원, 그리고 상담과 기도를 비롯한 봉사에 적극

적으로 나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희생적인 자발적 봉사는 교회 내부에 몰입하던 과거의 전통적 선교 방식의 확장인 동시에 감염병이 닥칠 때마다 헌신적으로 돌보던 기독교의 역사적 유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Wright, 2020).

반면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온라인 예배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층,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선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기여가 거의 불가능한 소형 교회들의 생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팬데믹 종식 이후에까지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돕는 구제책을 수립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선교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때문에 새롭게 제기된 이런 선교적 과제들은 다음 같은 몰트만(J. Moltmann)의 발언처럼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공간 중심에서 시간의 차원으로 이행하게 만들고 있다. “기독교 신학은 말 그대로 현재를 위한 신학(contemporary theology)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공유해야 한다”(Kung & Tracy, 1989, 220-224).

3. 예배의 변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오랫동안 고수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물론, 예배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 자체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인 가운데 2019년 매월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한 성인 가운데 91%가 방역을 위해 일정 기간 교회가 폐쇄되고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대체했다고 한다.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교인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대면예배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상예배로 전환했다(Pew Research Center, 2020). 우리나라 역시 비교적 최근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현장 예배만큼 온라인 가상 예배에 교

인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예배가 여전히 가장 높은 만족도(89.4%)를 기록했으나 온라인 예배 역시 비교적 높은 만족도(83.2%)를 보여서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의 온라인 예배가 교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식적인 예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정우, 2021).

이처럼 변화된 예배 환경 때문에 과거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등장하거나 예배에 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해서 일부 교회는 정부 방역지침과 무관하게 세계적으로 교회 폐쇄와 현장 예배 중단을 선언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교회의 결정은 주일성수를 중시하는 한국 기독교로서는 생소했지만,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기술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디지털 환경의 도움이 컸다. 가상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교회들은 개인과 가족이 교회 주차장이나 자동차극장에서 참여하는 ‘드라이브인 예배’(drive-in worship)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당국의 전면적인 교회 폐쇄에 대비해서 ‘걷는 예배’(walking worship)를 실행 중이다. 휴대폰으로 녹음파일을 내려 받고 정해진 주일예배 시간에 산책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에 참여한다(Yang, 2021, 53). 드라이브인 예배나 걷는 예배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들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달리 예배와 교회 자체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역시 달라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에서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가끔씩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는 형태의 ‘온라인교회’가 있다면 참가하겠다는 응답이 대략 절반(48.4%)에 해당했다. 이 수치는 이전 조사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비율(7.8%)이었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답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60.5%). 현장 예배의 소멸이라는 성급한 예측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는 이런 추세는 과거 1990년대 사이버교회에 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만든다(권지성 외, 2021). 21세기 초반까지 사이버 공간의 기독교적 활용을 주제로 한 논의는

부정적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논의를 통해 교회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이버교회 역시 교회들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의 대중화가 한층 심화하는 동시에 SNS와 결합한다면 기존의 현장 예배만큼 강력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매체에 적응도가 높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에 기초한 가상 예배가 현재의 부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IV. 코로나 팬데믹과 기독교교육의 방향

1. 거점 교육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춘 미국식 주일학교 모형과 일반 학교수업(schooling)이 상호 결합된 전통적 교회학교는 출범 이후 거의 두 세기 반 이상을 별다른 혁신 없이 존속했다. 웨스터호프(Westerhoff, 1984, 35)는 대략 40년 전에 교회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다음처럼 거론했다. “모든 교회가 목사 이외에 교회교육 전문가를 따로 초빙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고, 예배당 이외의 작은 방들이 겨우 두세 개 뿐이고, 물론 기청각 관계의 기재도 부족하며, 교사진도 부족하고, 학생도 연령별 클래스를 전부 채우지 못하는 소규모의 교회가 의외로 많다 …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는 많은 경우 … 좌절되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부정적 상황은 팬데믹 직전까지도 여전히 우리나라와 미국 교회 모두 거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일관적 평가이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환경을 갖추지 못한 교회교육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학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잃었다(범영수, 2021). 팬데믹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하고, 지금까지 교회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교회학교 학생들의 이탈이 가

속화할 것은 누구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팬데믹은 교회교육 전반에 걸쳐서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창의적 고민을 한꺼번에 요구한다. 교육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부족한 교수인력으로 다수의 학습자를 비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신앙 전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갖춘 채 교수와 학습이 진행되는 공교육과 달리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수업자료와 학습 매체에 의존해야 하는 교회학교 수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다양한 학과들을 여유 있게 학습하는 학교 수업에 비해서 주일 단 하루 동안에, 그것도 극히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육활동을 통해 모두가 기대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공동체 전체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팬데믹을 교회교육 전반에 걸친 해묵은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풀이나 재원을 충원하고 보완할 수 없을 뿐더러 공교육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매체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교육체계 자체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퀴 축을 중심으로 바퀴살이 펼쳐진 형태처럼 특정 교회학교나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학습의 거점, 또는 바퀴 축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 교회학교’(core church school)를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거점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협소한 교회건물을 벗어나서 가정이나 지역 도서관, 박물관, 고궁, 미술관, 대학캠퍼스, 그리고 공원이나 산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이 바퀴살의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위치의 성인들(강사, 상담가, 대학생, 학예사 등)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거점 교회학교를 주말학교와 연계해서 시간적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레익스(R. Raikes)가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의도했던 신앙과 교양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 역시 가능하다(유재덕, 2016, 91-3).

2. 교회학교와 안전 문제

팬데믹의 위협에 직면한 교회교육은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교육이 진행되는 교회 시설 전체가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성서의 메시지를 근거로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도피처, 즉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안전에 관한 대표적 구절이 시편 91편 10-11절(“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이다. 켈러(Keller, 124)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가 성서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시 90:1)가 되었다는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피난처 같은 안전한 공간으로 전유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을 신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묘사한 것은 바울의 발언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행 17:28)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뜻하는 범재신론으로 나중에 발전하는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안전의 신학’(theology of safety)은 팬데믹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교육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안전 문제는 코로나 확산의 대응책으로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팬데믹 초기에 등교를 포기하고 대응적(reactive) 휴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선제적(proactive) 휴교를 해야 할지를 교육 당국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혼란이 가중했다(Christakis, 182-4). 결국, 학교 무단결석이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부모들이 안전 문제로 자녀들의 등교를 포기했다. 교회학교 역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부모들의 이런 태도는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교육이 안전한 학습 공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상되는 위험을 축소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밀집도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교회학교의 학급들을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나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밀집도가 편차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교회학교는 전체 학생과 학급당 인원의 변화 추이를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공간의 확보 역시 중요하다.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소개한 ‘거점 주일학교’를 운영하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개별학습이나 조별학습이 가능한 분산형 공간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김경애 외, 2020, 137).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모임을 분산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교회학교 학급의 운영을 이원화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교회 차원에서 안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위기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퇴치하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생태 교육과 교회학교

끝으로, 팬데믹 시대의 교회교육은 생태 문제에 더욱 민감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유발하는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나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의 수확을 증대할 의도로 사용하는 화학비료 때문에 토양은 오염되고 있다. 열대우림은 벌목되고, 초원에서는 가축이 과잉 방목되며, 사막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인간 사회와 자연 간의 상호성에 기초한 신진대사가 깨어지고 인간의 고려가 배제된 일방적 관계로 진행하고 있다. 월러스-웰즈(Wallace-Wells, 2019)는 인류가 21세기 말에 도달하면 지구 가운데 일부는 아예 거

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가깝게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 역시 그 못지않게 불친절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현대 문명이 구상했던 거대한 프로젝트는 이미 총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했고, 자연에서 서식처를 잃어버린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파가 촉진되어 다른 바이러스들과 함께 인간사회에 침투해서 팬데믹을 발생시켰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생태변화를 해결할 목적으로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의 채택(1997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해에 파리협정을 비준하는데 참여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서 1.5°C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승 온도를 1.5°C로 제한할 경우에는 생물의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C보다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천호, 2021).

이처럼 생태계의 위기에 도달한데 공동의 책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역시 교육을 통해 이른바 ‘동료 피조물’(fellow creatures)로 간주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Moltmann, 2012, 251).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생태신학적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 과거에는 열대우림이나 인간이 접근하지 않은 자연에 새로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넘쳐난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에 의해서 생태 다양성이 파괴되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는 게 상당수 연구자들의 의견이다(Vidal, 2020). 지구의 건강과 함께 인간 사회의 안녕에 관한 책임의 초점이 자연에서 인간에게로 이동한 것이다.

아울러서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생활방식을 교회교육의 내용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부와 성공이 인간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고, 경제성장이 더 이상 복

지수준을 가리키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교회에서 교육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각자가 소비 중심의 가치에 순응해야 할지, 아니면 저항해야 할지 판단해서 절제하고 단순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학습자들이 베이트슨(G. Bateson)이 제시한 바 있는 ‘이중구속’(double bind)이라는 개념처럼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 모순된 메시지를 동시에 수용해서 전혀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Bauman & Mazzeo, 2016, 29-30). 달리 서술하자면, 생태에 관한 지식과 실천이 교회 학교 교육내용과 교사들의 삶 속에서 별다른 모순 없이 긍정적으로 통합되어 학생들의 삶을 이끄는 규범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2020년 특정 언론사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던 인류, ‘호모 마스크스’(Homo Maskus)는 세계 각국이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면서 언제쯤이나 팬데믹이 종결되어서 마스크를 벗은 채 면대면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지 궁금해 한다(김경민, 2020). 대규모 사회적 봉쇄라는 ‘전파 조절’(transmission control)과 신속한 백신 개발, 그리고 경구용 바이러스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방역 전문가들은 일반의 기대와 달리 간단하게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현재로서는 팬데믹의 종식되는 시점을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듯이 사회 전체가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해도 줄곧 변화하는 출생과 사망으로 사회구성원이 바뀔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만큼 사회 집단 내부에서 취약집단이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소멸하지 않고 마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독감 같은 ‘엔데믹’(endemic)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

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해서 팬데믹으로 발전할 때까지 줄곧 바이러스의 확산 양상을 추적하고 있는 크리스타키스는 몇 가지 백신 개발과 신속한 보급이 고무적이기는 해도 팬데믹의 조기 종결이나 바이러스의 완벽한 퇴치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백신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지만 완벽한 출구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2024년 무렵에나 팬데믹의 종결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타키스가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팬데믹 진행기’(immediate pandemic period)가 지속된다. 이후로 대부분이 집단면역에 도달하거나 백신이 널리 보급될 경우에는 의료와 심리,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충격을 벗어날 수 있는 ‘팬데믹 과도기’(intermediate pandemic period)를 통과하게 된다. 마침내 2024년 무렵에서야 ‘포스트 팬데믹 유행기’(post-pandemic period)가 시작된다(Christakis, 325-326).

팬데믹 이후에도 인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숙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보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퇴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적 봉쇄는 결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금원섭, 2020).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니, 과거 1980년에 있었던 천연두 퇴치를 위한 세계적 협력처럼 바이러스 감염병에 동일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인도네시아 뉴기니에서 연구하다가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건설적 편집증’(constructive paranoia)을 근본 대책으로 제안한다. 모든 게 잘못될 수 있음을 전제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면서 극도로 주의하고 대비하는 게 건설적 편집증이다. 동시에 과거 문명사회의 몰락을 초래한 환경 파괴를 멈추

는 것 역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다이아몬드는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육은 현재는 물론 팬데믹의 종식 이후까지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및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는 심리적 위기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서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공감과 협력의 감정과 태도를 기독교 차원에서 강화하는 한편, 생태문제와 디지털 기술공학에 대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 논의와 개선에 필요한 실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과거처럼 특정 공간과 시간에 집중하는 전통적 교육체계를 탈피해서 일종의 거점(core) 교회학교를 신설하거나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 내부 공간들을 재배치하거나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생활방식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두용 외 (2021).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KIET 산업경제**.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12&state=view&tab=list&idx=57621&recom=4614&ord=0dptj에서 인출.
- [Kang,D. Y. et al. (2021). The Impact of the Corona Pandemic on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y. KIET Industrial Economy.]
- 곽노필 (2021. 05. 08). 전 세계 코로나 실제 사망자 수, 공식 발표 2배 넘는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94360.html#csidxa905b1ac6da2b8296876a289b259b0f에서 인출.
- [Kwak, N. P. (2021. 05. 08). The actual number of deaths from coronavirus worldwide is more than double the official announcement. Hankyoreh News.]
- 권지성 외 (2021).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 서울: 삼인.
- [Kwon, J. S. et al. (2021). A church infected with the virus. Seoul: Samin.]
- 금원섭 (2020. 07. 10).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건설적 편집증 가져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0/2020071000013.html에서 인출.
- [Geum, W. S. (2020. 07. 10). In the age of Corona, Everything can go wrong...Must have a constructive paranoia. Chosun Ilbo.]
- 김경민 (2020. 12. 27). 미래학의 대부 짐 데이토 “팬데믹의 최종 승자국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0/12/27/NHM5AMV3SJAXPELPELDKMDPHQA/>에서 인출.
- [Kim, K. M. (2020. 12. 27). The godfather of futurology, Jim Dayto: “The final winner of the pandemic is... .” Chosun Ilbo.]
- 대한상공회의소. (2021).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와 시사점 조사.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3952&CHAM_CD=B001에서 인출.
- [KCCI (2021). A study on changes in consumption behavior and implications in the era of Corona.]

- 범영수 (2021. 08. 17). 예상통합,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 발표. **침례신문**.
<http://baptistnews.co.kr/mobile/article.html?no=14374>에서 인출.
- [Beom, Y. S. (2021. 08. 17).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 2021 Korean church COVID-19 follow-up. Baptist News.]
- 유재덕 (2016). **기독교교육의 역사**. 서울: 브니엘.
- [Yu, J. D. (2016).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Peniel.]
- 유재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 [Yu, J. D. Christian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3-37.]
- 이상규 (2018). 미래보건의료와 환자참여. **미래보건의료 전망연구**, 23, 510-556.
- [Lee, S. G. (2018). Future health care and patient participation. Future health care prospect study.]
- 이정희. (2021. 02. 2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https://www.kbiz.or.kr/download>에서 인용.
- [Lee, J. H. (2021. 02. 23). In Response to COVID-19, Social Distancing to Minimize Damage to Small Businesses.]
- 조천호. (2021). 왜 탄소중립이어야 하는가? **에너지정보소통센터**. https://www.etrans.or.kr/info/list.php?admin_mode=read&no=4243&make=&search=&prd_cate=1에서 인출.
- [Cho, C. H. (2021). Why should it be carbon neutral? Energy Information Communication Center.]
- 지젝, 슬라보예. (2020. 12. 20). 아감벤의 말은 넘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5041.html#csidx6d39c54afaabccb97c55329b5a9b8b4>에서 인출.
- [Zizek, S. (2020. 12. 20). Agamben's words must be overcome. Hankyoreh newspaper.]
- Anonymous (2020. 05. 24). Coronavirus pandemic.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308222/coronavirus-pandemic.aspx>에서 인출.
- Anonymous (2020. 06. 27). Toxic mix of violence and virus sweeps poorest countries, w

- arns war reporter.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un/27/toxic-mix-of-violence-and-virus-sweeps-poorest-countries-warns-war-reporter-lyse-doucet>에서 인출.
- Bauman, Z. & Mazzeo, R. (2016). **소비 사회와 교육을 말하다**. 나한영 역. 서울: 현암사. (원저 2012년 출판).
- [Bauman, Z. & Mazzeo, R. (2016). Talking about consumer society and education. Translator: Na, H. Y. Seoul: Hyeonams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2).]
- Bowman, H. & Dingra, N. (2020). Virtual Communion, COVID-19, and the Nature of the Body of Christ. <https://www.winchester.ac.uk/media/content-assets/documents/rke-documents/covid-and-theology-conference-papers/Bowman-and-Dhingra,-Virtual-Communion.pdf>에서 인출.
- Cox, H. (2018). **신이 된 시장**. 유강은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2016 출판).
- [Cox, H. (2018). The Market as God. Translator: Yoo, K. E. Seoul: MunYe Publishing.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6).]
- Cray, G. (2016). Disciple making the future church. <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0265378820963156>에서 인출.
- Christakis, N. (2021). 신의 화살. 홍한결 역. 서울: 월북. (원저 2020 출판).
- [Christakis, N. (2021). Apollo's Arrow. Translator: Hong, H. K. Seoul: Wilboo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 Doyle, C. Andrew. (2020). A Reflection on the Eucharist During the time of COVID-19. https://28f7fb3fa1a43717a53b-cb342165bfeaa4f2927aec8e5d7de41f.ssl.cf2.rackcdn.com/uploaded/o/0e10076272_1585949934_on-the-eucharist.pdf에서 인출.
- Ehlers, E. (ed.). (2006). *Earth System Science in the Anthropocene*. Berlin: Springer, 13-18.
- Francis, P. (2020). Fratelli Tutti.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encyclicals/documents/papa-francesco_20201003_enciclica-fratelli-tutti.html에서 인출.
- Hauerwas, S. (1991).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Hiscott, J. et al. (2020). The global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Cytokine and Growth Factor Review*. 53, 1-9.
- Jones, R. (2020. 03. 25). Virtual Communion: Church leaders say it can be don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https://www.pcusa.org/news/2020/3/25/virtual-communion-church-leaders-say-it-can-be-don/>에서 인출.
- Kung, H. & Tracy, D. (1989).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New York: Crossroad.
- Lazer, D. et al. (2020. 04. 20). The State of the Nation: A 50-State COVID-19 Survey. *Northeastern University*. <https://lazerlab.net/>에서 인출.
- McNeill, W. H. (1976). *Plagues and Peoples*. New York: Doubleday.
- Michaud, A. and Cousens, X. (2020. Sep. 05). COVID-19's Lasting Effects on Health Car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covid-19s-lasting-effects-on-health-care-11599314400>에서 인출.
- Moltmann, J. (2012). **희망의 윤리**. 광혜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10 출판). [Moltmann, J. (2012). *Ethik der Hoffnung*. Translator: Kwak, H. W.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0).]
- Perez-Stable, E. J. (2021). Promoting Health Equity in the Time of COVID-19. *NIH*. https://radx-up.org/wp-content/uploads/2021/03/Perez-Stable_Evidence-Academy-Keynote-Feb.24.2021.pdf에서 인출.
- Persad, G. & Emanuel, E. J. (2020. June. 09). The Ethics of COVID-19 Immunity-Based Licenses ("Immunity Passports"). *JAMA*.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65836?resultClick=1>에서 인출.
- Rich, M. & Hida, H. (2021. 08. 25). As Pandemic Took Hold, Suicide Rose Among Japanese Women.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2/22/world/asia/japan-women-suicide-coronavirus.html>에서 인출.
- Rosen, L. (2020. May. 14). COVID-19 is like an X-ray of society. *Scientific American*.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voices/covid-19-is-like-an-x-ray-of-society/>에서 인출.

- Russell, L. (1979). **여성 해방의 신학**. 안상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원저 1974 출판).
[Russell, R. (1979). Human Liberation in a Feminist Perspective-A Theology. T
ranslator: Ahn, S. I.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riginal article p
ublished in 1974)]
- Vidal, J. (2020. March. 18). Destroyed Habitat Creates the Perfect Conditions for Coronav
irus to Emerge. *Scientific American*.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
destroyed-habitat-creates-the-perfect-conditions-for-coronavirus-to-emerge/](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destroyed-habitat-creates-the-perfect-conditions-for-coronavirus-to-emerge/)에
서 인출.
- Wade, K. (2021. 04. 13).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상흔을 남길 것인가? *Schroders*.
[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insights/economic-viewpoin
t/will-covid-leave-scars-on-the-world-economy](https://www.schroders.com/ko/kr/asset-management/insights/economic-viewpoint/will-covid-leave-scars-on-the-world-economy)에서 인출. [Wade, K. (April 13,
2021). Will COVID-19 leave a Scar on the Global Economy? Schroders.]
- Wallace-Wells, D. (2019). *The Uninhabitable Earth: Life after Warning*. New York: Tim
Duggan Books.
- Ward, G. (2002). Between virtue and virtuality. *Theology Today*. 59(1), 55-70.
- Wright, T. (2020). **하나님과 팬데믹**. 이지혜 역. 서울: 비아토르. (원저 2020 출판). [Wright,
T. (2020). God and the Pandemic. Translator: Lee, J. H. Seoul: Viator.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 Yang, F. (2021).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의 기독교 뉴노멀 시대의 재방향
설정(Re-Orient). 한국기독교학회 제50차 학술대회 자료..
<http://www.kacs.or.kr/>에서 인출. [Yang, F. (2021). Re-Orient of
the Christian New Normal Era of the Global East. the 50th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 Zizek, S. (2020). 팬데믹 패닉: 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
성역. 서울: 북하우스. (원저 2020 출판). [Zizek, S. (2020).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Translator: Kang, W. S.
Seoul: Bookhouse.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20).]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and the Post Coronavirus Era

Jae Deog Yu

Associate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negative changes in our society to the point where it has to be divided into 'Before Corona'(BC) and 'After Corona'(AC). Typical examples include economic difficulties and medical inequality of some social excluded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who die alone because they are alienated from social networks, and hate and violent discrimination against Asian immigran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Western countries in these days. In addition, the pandemic is at a global level, ranging from the vaccine gap between the first and third worlds, triggered by competition for securing vaccines between countries that put their own interests first, the income gap due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financial market, and the bankruptcy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In 'all'(pan) and 'people'(demos) became a limit situation that could not be avoided. There is also the opinion that the world could witness the worst catastrophe if the pandemic spreads to poor countries at risk of increasing violence, poverty and fami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society caus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accordingly.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s the medic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crises that society faces in the post-corona era. Next, we look at the changes in Christian theology, mission, and worship, which are strongly required for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we propose a new direction for Christian education necessary in

the post-corona era.

《 **Keywords** 》

coronavirus, pandemic, inequality, psychological crisis, Christian theology, mission, worship, core school, safety, ecological issues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